

## 종로구 서북권역 경전철 우선건설 요청 건의안

의안  
번호

1264

제안연월일: 2007. 4. .

제안자: 김성은 의원외 10인

### 1. 주 문

종로구 서부지역은 고궁 등 문화재와 정부기관이 산재해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로 인해 교통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반면 교통여건이 열악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관련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시 종로구 서부지역이 포함된 시청~은평 구간과 홍제~길음 구간을 우선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종로구는 서울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조선전국 초부터 600여년 동안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해 왔으며 각종 고궁 및 정부기관 등이 산재해 있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음.

반면, 교통량에 비해 도로시설은 크게 부족하여 서부지역인 구기터널에서 경복궁까지 구간은 차량 정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은평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증가로 종로구 서부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교통 불편이 가중될 것임.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경전철 건설사업 구간 중 종로구 서부지역이 포함된 시청~은평 구간과 홍제~길음 구간을 우선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추진한다면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강남북간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참고 규정 : 도시철도법 제3조의2

## 종로구 서북권역 경전철 우선건설 요청 건의안

종로구는 조선건국 초기부터 600여년 동안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여건 때문에 매일 많은 차량들이 종로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의 서부지역은 청와대 및 경복궁 등 정부기관과 문화재 등이 산재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방문객이 많아 이로 인한 정체가 구기터널에서 경복궁역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예전부터 교통 불편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평뉴타운 사업에 의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은평뉴타운 사업이 마무리되면 종로지역을 통과하여 강남 등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증가하여 이 지역의 교통사정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강남·북간 균형 발전과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의하면 서울 시내를 동북권역, 서북권역, 서남권역, 동남권역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경전철 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종로구 지역은 동북권역에 홍제~길음과 서북권역에 시청~은평 구간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강남북간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교통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종로구 서부지역을 포함한 시청~은평 및 홍제~길음 구간을 경전철 우선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2007. 4. 3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